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수출 - 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17년 1분기)

목 차

■ 수출-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7년 1분기)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부문별 경제 동향	2
3. 산업별 경기 동향	9
4. 경기 판단과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수출-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7년 1분기)

■ 개 요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의 불일치) 2016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6년 2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행지수가 장기간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동행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부문별 경제 동향

(소비 디플레 고착화 우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에도 물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으나 2016년 4분기 이후 핵심소비재인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소득 감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구매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소비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회복 지속) 해외수요(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의 설비투자 회복이 강화되고 있다. 수출 부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성장력 유지) 전체 건설경기는 공공 부문의 부진을 민간 부문이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기성과 수주 모두에서 공공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 부문의 호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성장세가 이어질 지는 회의적이다.

(수출 회복 국면 안착) 올해 들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출 경기 회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증가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중국시장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시장에 대해 모두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가 회복국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시장 불안) 고용시장 전반의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제조업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외형상 지표도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

히 서비스업과 건설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20만 명대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이다.

(생활물가 급등) 최근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하고 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6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그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 주요 농축산물 가격 불안, 2차 가공식품으로의 인플레이션 파급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6년 4분기 1%대 중반에서 2017년 1월과 2월에 들어 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이 2016년 12월 1.2%에서 2017년 1월과 2월에 각각 2.4% 및 2.3%로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경제 심리)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체감 수준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월중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출하 증가와 재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미약한 내수 경기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향후 방향성마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경기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들어 건축 부문의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토목 부문은 여전히 침체되는 모습이다.

■ 경기 판단과 시사점

(현 경기 판단과 전망) 수출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수출-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됨에 따라 그 영향이 수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 부문도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the worst is over)으로 보이나, 여전히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현재 국면은 수출-내수 간의 경기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경기 전망) 당분간 수출-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출 경기 회복세 지속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과 '내외수 복합불황'의 두 국면 가능성이 존재한다.

(1단계) 우선 향후 경기는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전달되는 데에 상당한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긍정적 시나리오) 이후 수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내수로 회복 기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가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단계 부정적 시나리오) 반면 최근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기가 냉각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불황에 빠지는 내외수 복합불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경기 시나리오별 전망>



(시사점) 수출경기 회복 안착만이 경제 상황이 개선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요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를 회복기조에 안착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에 있는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재정 조기집행률 제고 노력 지속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내수 디플레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넷째, 비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의 불일치) 2016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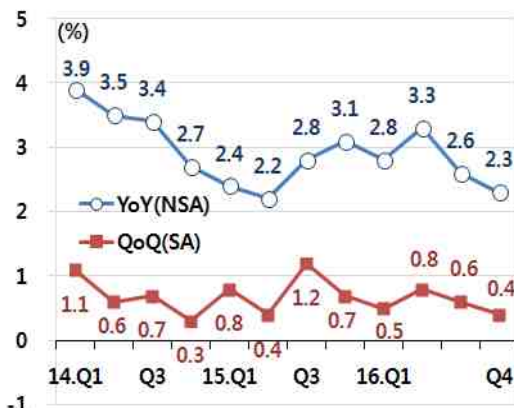
- 2016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분기에 비해 하락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에 0.6%, 4분기에 0.4%를 기록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2.8%, 2분기 3.3%, 3분기 2.6%, 4분기에 2.3%를 기록

- 그러나 선행지수가 장기간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동행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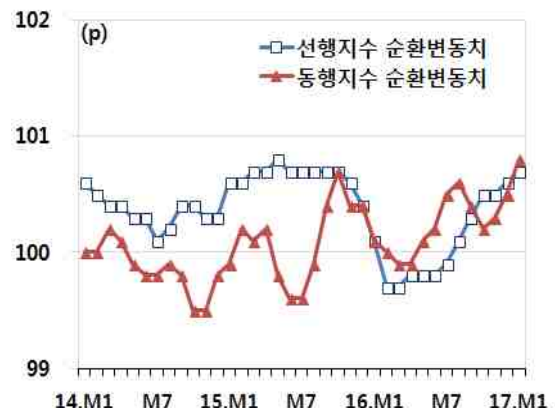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시현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6년 10월 100.2p, 11월 100.3p, 12월 100.5p, '17년 1월 100.8p
- 한편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약 1년여 동안 상승세를 지속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6년 10월 100.5p, 11월 100.5p, 12월 100.6p, '17년 1월 100.7p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2. 부문별 경제 동향

○ (소비 디플레 고착화 우려) '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에도 물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 지연이 전망

- 비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으나 '16년 4분기 이후 핵심소비재인 내구재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시현

· 12월 감소세를 기록했던 내구재 소비는 1월에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회복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6.11월 3.2%, 12월 1.8%, '17.1월 4.0%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6.11월 1.3%, 12월 Δ 1.6%, '17.1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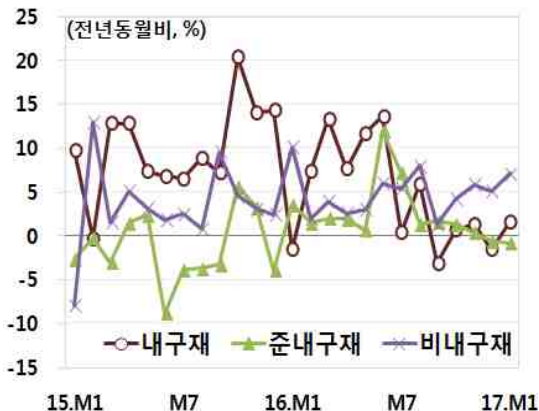
· 한편 비내구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1월 7.1%)중이며 준내구재는 감소세를 기록((1월 Δ 0.8%))

- 고용 시장 불안에 따른 소득 감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구매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소비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소비재수입액은 단가상승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나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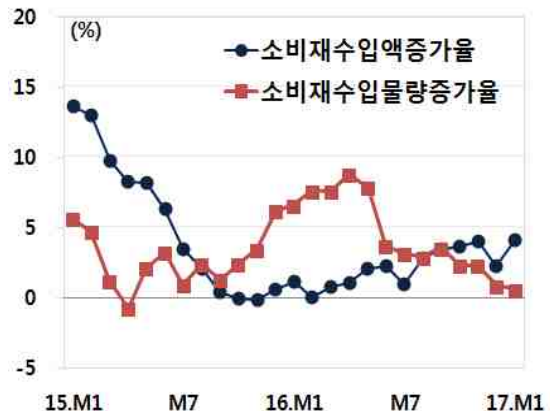
· 특히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은 '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모습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주 : 6개월 이동평균.

○ (설비투자 회복 지속) 해외수요(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의 설비 투자 회복이 지속

- 수출 부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16년 11월 이후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
 - 수출경기 호조가 설비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설비투자지수가 증가세를 지속중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6.11월 10.2%, 12월 10.3%, '17.1월 11.4%

- 또한 전기대비 기준 설비투자지수 증가율도 '16년 12월과 '17년 1월 각각 5.6% 및 2.6%로 증가세를 유지

-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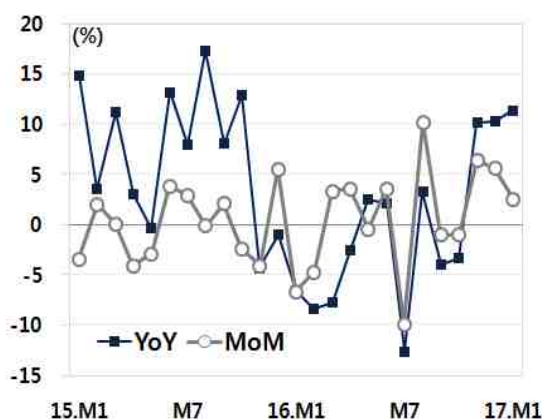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16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중이며 특히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 '16.11월 23.9%, 12월 23.3%, '17.1월 38.6%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16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을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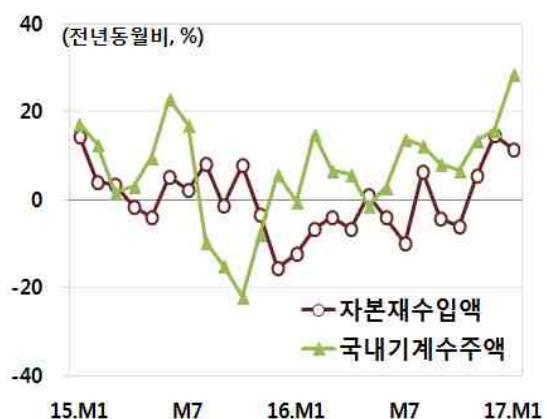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6.11월 5.4%, 12월 14.7%, '17.1월 11.5%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 성장력 유지) 전체 건설경기는 공공 부문의 부진을 민간 부문이 뒷받침하는 모습

-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 부문의 호조가 이어지는 모습

- 1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7%로 '16년 12월의 16.9%보다 상승 추세

※ 건설기성 증가율(YoY): '16.11월 28.9%, 12월 16.9%, '17.1월 20.7%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1월중 29.4%의 증가율 기록하며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은 0.2% 감소하는 모습

※ 공공건설기성증가율(YoY): '16.11월 12.7%, 12월 △3.7%, '17.1월 △0.2%

※ 민간건설기성증가율(YoY): '16.11월 36.5%, 12월 32.6%, '17.1월 29.4%

- 건설수주액(선행지표)도 민간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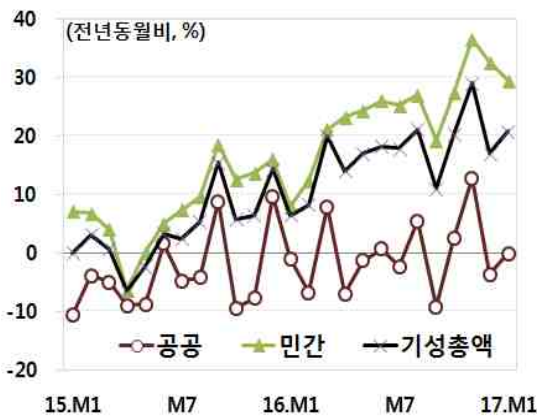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16년 12월과 '16년 1월에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

※ 건설수주 증가율(YoY): '16.11월 △5.1%, 12월 47.0%, '17.1월 19.5%

※ 공공건설수주증가율(YoY): '16.11월 △14.5%, 12월 31.8%, '17.1월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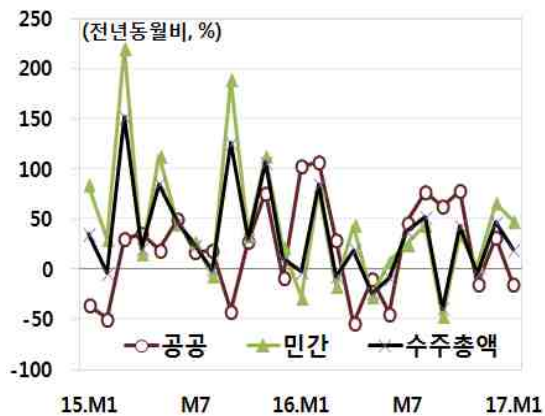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증가율(YoY): '16.11월 2.6%, 12월 65.8%, '17.1월 48.0%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수출 회복 국면 안착) 올해 들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출 경기 회복이 강화되는 모습

-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증가율도 상승하는 모습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수요의 회복세로 '16년 11월 이후 수출단가 상승 기조가 지속중

※ 수출액 증가율: '16.11월 2.3%, 12월 6.3%, '17.1월 11.2%, 2월 20.2%

·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도 1월과 2월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수출경기 회복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

※ 수출물량 증가율: '16.11월 3.2%, 12월 △3.4%, '17.1월 5.0%, 2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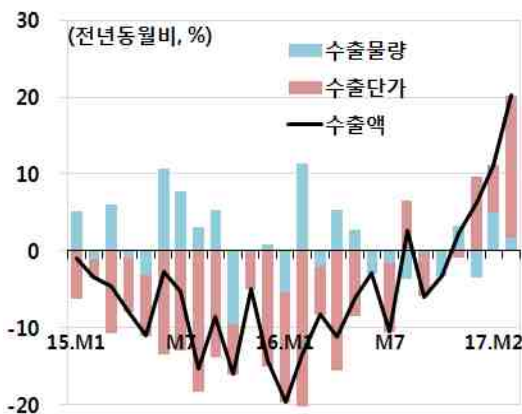
- 지역별로 주요 수출시장에 대해 일제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은 '16년 11월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그 증가폭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

※ 대중 수출액 증가율: '16.11월 0.2%, 12월 9.7%, '17.1월 13.4%, 2월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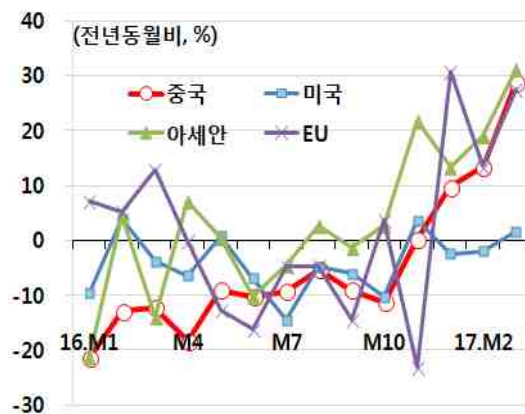
· 한편 2월중 대 아세안 수출은 31.2%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대 미국 수출도 1.7% 증가하였으며, 대 EU 수출도 27.5% 증가

<월별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시장 불안) 고용시장 전반의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

-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외형상 지표도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¹⁾

· 2017년 1월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의 3.7%보다 높아졌으며, 1월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월 수준(58.8%)보다 상승

- 서비스업과 건설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20만 명대가 고착화되는 분위기

·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에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

·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2016년 7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 취업자 증감(YoY): '16.11월 33.9만 명, 12월 28.9만 명, '17.1월 24.3만 명

※ 제조업 취업자 증감: '16.11월 △10.2만 명, 12월 △11.5만 명, '17.1월 △16.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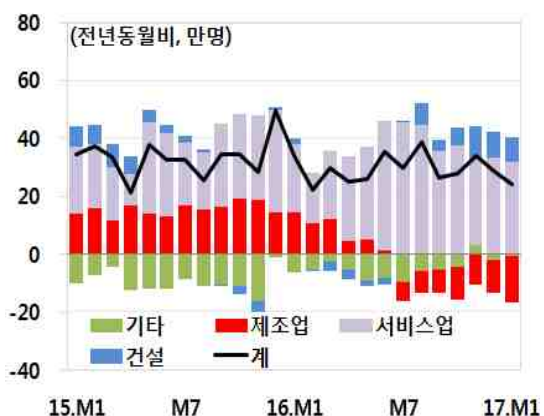
· 한편 1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32.1만 명 증가, 건설업은 8.5만명 증가

<실업률 및 고용률>



자료 : 통계청.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1)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 추세보다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생활물가 급등)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 압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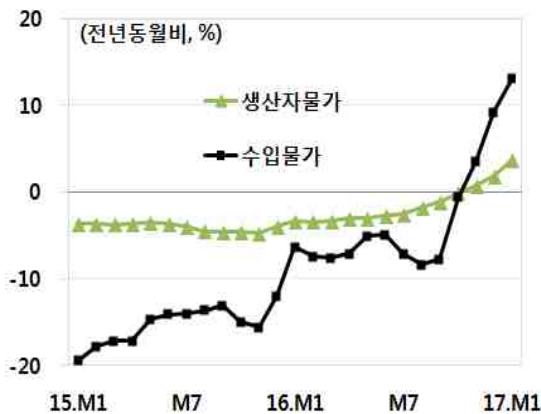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6년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그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

- 특히 수입물가상승률은 1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3.2%로 급증
 - ※ 수입물가 상승률(YoY): '16.11월 3.6%, 12월 9.2%, '17.1월 13.2%
- 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3.7%로 증가세를 지속
 -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6.11월 0.7%, 12월 1.8%, '17.1월 3.7%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년 4분기 1%대 중반에서 올해 1월과 2월에 들어 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물가상승률 급증

- 1월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0% 및 1.9%로 증가하는 모습
 -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6.12월 1.3%, '17.1월 2.0%, 2월 1.9%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²⁾) 상승률은 2월 1.5%, 생활물가³⁾ 상승률은 2.3%를 기록
 - ※ 생활물가상승률(YoY): '16.12월 1.2%, '17.1월 2.4%, 2월 2.3%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근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2) 소비자물가 품목중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3)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는 481개).

○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경제 심리)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체감 수준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

- 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체감 경기는 극심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모습

· 가계의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6년 12월 이후 50p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현재경기판단CSI: '16.12월 55p, '17.1월 51p, 2월 55p

· 반면 향후경기전망CSI는 2016년 11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

※ 향후경기전망CSI: '16.11월 64p, 12월 65p, '17.1월 67p, 2월 70p

- 2016년 말의 기업의 심리적 냉각 현상이 2017년에 들어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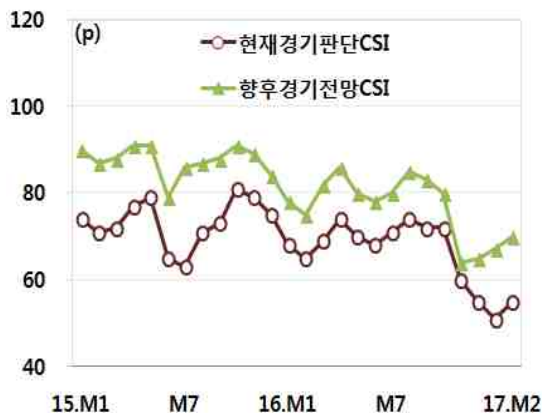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1월과 2월에 80p대에서 3월에는 90p대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전경련 BSI: 1월 89.9p, 2월 87.7p, 3월 92.1p

· 한은 BSI(업황전망)도 2016년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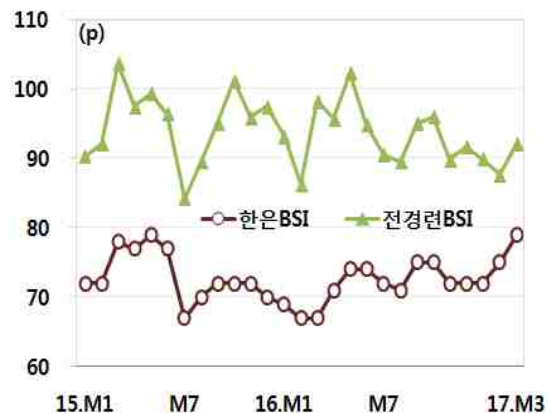
※ 한은 BSI: 1월 72p, 2월 75p, 3월 79p

<소비자심리지수(CCSI)>



자료 : 한국은행.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3.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1월중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

- 2017년 1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3.6%로 2015년 12월의 3.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

- 전년동기대비 기준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16년 11월 4.9%에서 12월과 1월에 3%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모습

- 전산업 생산증가율(YoY): '16.11월 4.9%, 12월 3.5%, '17.1월 3.6%

-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1월에 1.0%로 '16년 12월의 0.2%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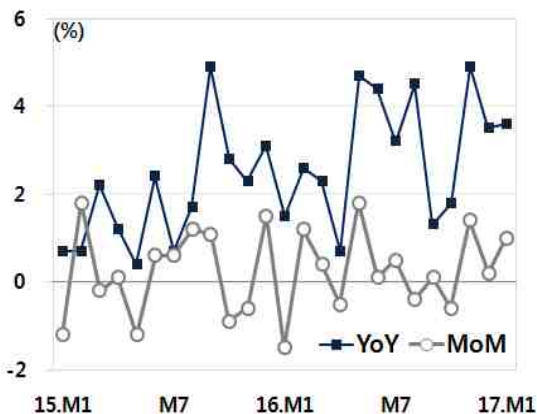
- 주요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증가율을 유지

-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16년 11월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모습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16.11월 5.4%, 12월 4.2%, '17.1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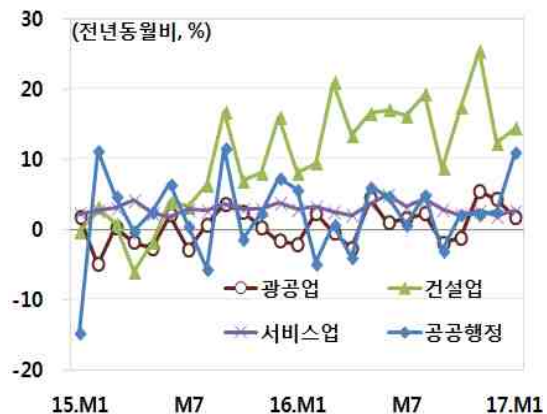
- 한편 1월 건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6년 12월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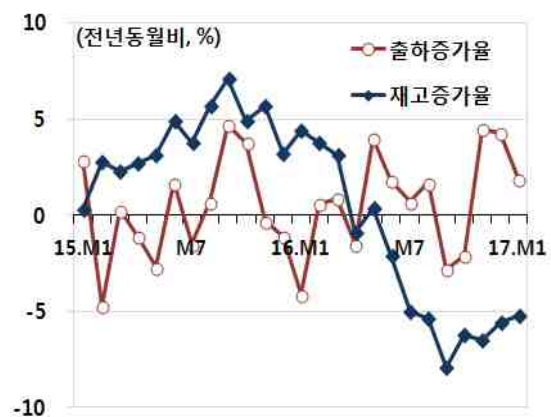
- (제조업)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출하 증가와 재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화학 산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였으나 조선, 자동차, 영상음향기기 등에서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증가율 낮아지는 모습
 - 제조업 생산증감률이 '16년 11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는 모습
 -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16.11월 5.6%, 12월 4.3%, '17.1월 2.0%
 - 제조업 1월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모습
 - ※ 제조업 평균가동률: '16.11월 73.7%, 12월 72.6%, '17.1월 74.3%
- 한편 재고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1월 이후 출하가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
 - 출하증가율은 '16년 10월 감소세에서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또한 재고증가율은 '16년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수요 확대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
 - ※ 출하증감률(YoY): '16.11월 4.5%, 12월 4.3%, '17.1월 1.9%
 - ※ 재고증감률(YoY): '16.11월 Δ 6.5%, 12월 Δ 5.6%, '17.1월 Δ 5.2%

<제조업 생산증감률 및 가동률>



자료 : 통계청.
주 : 생산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업은 건축 부문이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미약한 내수 경기의 영향으로 향후 방향성이 불확실한 모습

·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6년 12월 전년동월대비 1.9%에서 '17년 1월에 2.7%로 상승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16.11월 2.6%, 12월 1.9%, '17.1월 2.7%

· 전기대비로는 '17년 1월 0.5%로 '16년 12월의 0.4%와 비슷한 수준 기록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16.11월 0.3%, 12월 0.4%, '17.1월 0.5%

- 건설업 경기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들어 건축 부문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토목 부문은 침체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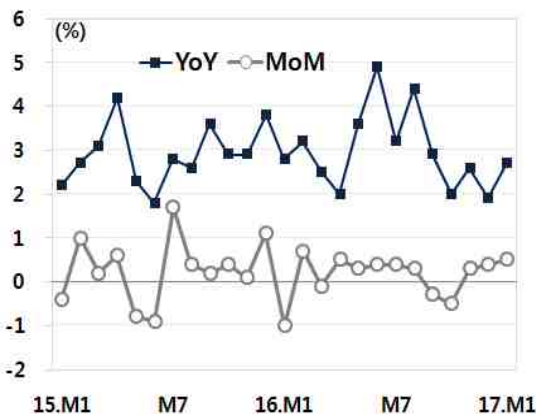
· 건축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공공 부문(1월 YoY 20.7%)과 민간 부문(1월 YoY 41.8%)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지속

※ 건축 건설수주액 증가율(YoY): '16.11월 9.7%, 12월 88.0%, '17.1월 38.3%

· 토목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16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침체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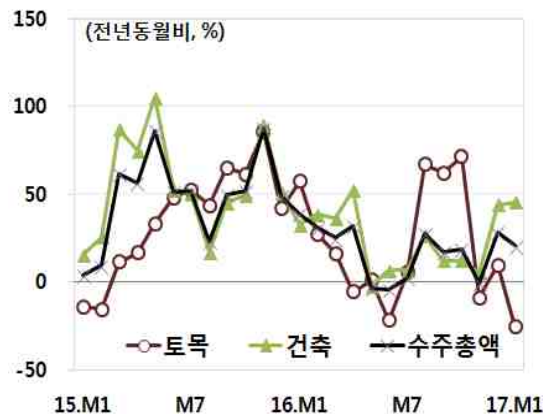
※ 토목 건설수주액 증가율(YoY): '16.11월 Δ 45.7%, 12월 Δ 10.7%, '17.1월 Δ 20.7%⁴⁾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3개월 이동평균.

4) 이동평균이 아닌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4. 경기 판단과 시사점

(1) 1분기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 (2017년 1분기 경기 판단) 수출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수출-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나타남
 - 세계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됨에 따라 그 영향이 수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내수 부문도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the worst is over)으로 보이나, 여전히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현재 국면은 수출-내수 간의 경기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 경기 전망) 당분간 수출-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출 경기 회복세 지속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과 '내외수 복합 불황'의 두 국면 가능성이 존재
 - (1단계) 향후 경기는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전달되는 데에 상당한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단계 긍정적 시나리오) 이후 수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내수로 회복 기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가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2단계 부정적 시나리오) 최근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기가 냉각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불황에 빠지는 내외수 복합불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향후 경기 시나리오별 전망>



(2) 시사점

- 수출경기 회복 안착만이 경제 상황이 개선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야 할 것임

첫째, 주요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를 회복기조에 안착시켜야 한다.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전체 수출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한한령(限韓令)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되 선제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미국 내에서 한-미간의 통상 현안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히트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에 있는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 지금과 같이 내수활성화 대책이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체감도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수요 파악, 규제에 해당되는 정부행위의 범위 확대, 예외 없는 규제 일몰제 도입, 부처별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함

셋째, 재정 조기집행을 제고 노력 지속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내수 디플레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 여러 가지 여건상 추경편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 강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고가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요구됨

넷째, 비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주력, 물가 안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약화 방지 등을 통해 건전한 소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한편 정권 교체기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적 비일관성 차단, 정치적 이슈에 편승하는 정책 개발 금지 등을 통해 민간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